

무위사

도갑산 산자락 너머로 석양이 기웃기웃 넘어가고 있었다. 충주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월출산과 도갑산 사이의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 산길은 남쪽으로 나 있었다. 멀리 절이 하나 보였다. 노을 진 하늘 언저리는 날빛이 남아 밝았다. 그런데 고갯길 양편의 산자락은 벌써 산그림자가 접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켜걸음으로 절을 향해 걸어갔다. 절은 무위사였다. 최씨가 말했다.



“찌그 보이는 것이 무위사 같그만.”

“아까 만난 나무꾼이 절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 거라고 허든디 참말로 그럴게라우?”

“글씨.”

“잘 디가 읊으믄 몰래 법당으로 들어가 자봅시다요. 부처님이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겠지라우.”

“요런 거지꼴로 어처케 부처님 겨시는 디서 잘 수 있당가.”

“부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허든데요. 은젠가 으면 스님이 그러던디
왕도 거지도 부처님 앞에서는 다 평등허다고 그러드그만요.”

“아따, 동상은 말을 갖다 붙이기도 잘 허네잉.”

“성님, 참말로 지가 스님헌테 들은 말이어라우.”

무위사는 충주에서 보았던 암자와 달리 규모가 컸다. 충주 북서쪽 남한강이 보이는 대문산에 있는 암자는 조그만 대웅전과 요사채뿐이었던 것이다. 무위사도 50여 년 전 관음사로 불릴 때는 극락전과 미륵전, 요사채만 있는 작은 절로서 소박했다. 그런데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형미가 주지로 부임해 온 뒤부터 절 이름이 무위사로 바뀌고 나서는 왕건의 지원을 받아 큰 절로 변모했던 것이다. 형미는 8년 동안 주지로 살면서 원래 천태종 절이었지만 무위법(無爲法)을 닦는 선찰로 일신했다. 또한 탐진청자 집산사찰로 이름을 떨치게 했다.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선승들이 무위사에서 청자다기를 구했고, 탐진청자의 집산사찰이 된 데는 형미의 속가 아버지 최낙권의 역할도 컸다. 노장사상에 심취했던 최낙권은 탐진 이웃 고을인 고안에 살면서 도공들 가운데 특히 탐진의 최씨들과 교분이 두터웠다. 고안에도 가마들이 있었는데, 고안청자는 아직은 탐진청자보다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무위사를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스님들이 선방에서 참선 중이었고, 마당 한쪽에는 탐진청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최씨가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스님을 붙들고 말했다.

“스님, 하룻밤 목을 수 읊었습니까요?”

스님이 두 사람의 행색을 살펴보다니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오?”

“청해진에 가는그만요.”

“가리포에 법화사가 있는데 그곳까지는 무리 같소. 그러니 무위사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오.”

“아이고메, 스님 고맙그만요.”

“난 참선하는 스님들을 뒷바라지하는 원주스님이오.”

“원주스님, 지덜이 도와드릴 일은 읍을까요?”

원주스님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참선 중인 스님들이 저기 쌓인 탐진청자들을 창고로 옮겨주어야 하는데
오늘따라 선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소, 그러니 두 분께서 저기
탐진청자들을 창고로 옮겨주시오.”

“모양이 다른디 놓일 자리만 알려 주씨요, 원주스님.”

“자리는 다 정해져 있지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옮기면 됩니다.”

최씨와 하씨는 일단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의 사면은 청자들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다. 원주스님이 말했다.

“맞은편 널빤지에 청자다기들을, 왼편 널빤지에 청자향아리들을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널빤지에는 청자접시와 청자사발을 포개놓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창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당에 놓인 청자그릇들을 나르기 시작했다. 청자의 빛깔은 다양했다. 뇌록색, 청록색, 녹갈색, 황갈색 등등이었다. 청자그릇들을 옮기다가 최씨가 말했다.

“동상은 으편 빛깔이 좋은가?”

“무신 빛깔이 좋은지 모르겠는디요. 갖고 짚은 것은 있그만요.”

“뭣인디?”

“성님, 지는 시방 들고 있는 이 청자비개가 맘에 들그만요. 여그다가 머리뺨을 대든 잠이 술술 잘 오겼그만요.”

하씨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청자베개였다. 크기는 목침만하고 속이 텅 비어 있어 가벼워 보였다. 최씨도 가지고 싶은 것을 말했다.

“나는 요 청자항아리가 탐나네. 항아리에다가 술을 담아놓고 훌쩍훌쩍 마시든 을매나 맛있을까잉.”

최씨가 가리키고 있는 청자항아리는 목이 길고 입은 작았다. 빛깔은 뇌록색으로 탁했지만 모양은 과년한 처녀 같았다. 청자항아리는 원주스님이 한쪽으로 잘 옮기라고 주의를 준 것들이었고, 몇 개 되지 않았다. 청자가마에서 잘 나오지 않으니 그만큼 귀하다는 말이었다.

“성님 말썸 듣고봉께 고것이 아조 이쁘그만요. 가슴은 오지고, 목은 질고, 주뎡이는 동그란 것이 영낙없이 잘 생긴 처녀 같그만요.”

“아따, 동상. 흠애비가 처자 생각허는 거 같네잉. 나는 술 생각이 나그만.”

그때 원주스님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두 거사님 손이 빠릅니다. 벌써 다 끝나가니 말입니다.”

최씨가 원주스님에게 웃으며 말했다.

“스님, 저는 저 향아리를 보고 술 생각이 나부렸고, 이 동상은 처자가 생각난다고 그란디 스님은 뭣이 생각난게라우?”

“청자향아리는 절에 보낼 것들입니다. 샘물을 담아 불단에 올리는 정병입니다.”

원주스님은 청자향아리들이 보내질 곳을 알고 있었다. 쌍봉사와 보림사, 태안사와 실상사 등 대부분 차도구인 다기와 함께 선찰에서 가져갈 청자향아리였다. 그러나 원주스님은 정병용 말고도 화병으로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번은 청자정병에 무심코 꽃을 꺾어 꽂았는데 법당이 아주 환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께 말씀드렸는데, 주지스님께서서는 아주 귀한 정병이니 그러지 말라고 경책하시더군요.”

올봄이었다. 무위사 마당가에 흰 눈 같은 매화꽃이 피어 있을 때였다. 원주스님은 문득 불단의 부처님께 매화꽃을 공양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당가에 있는 매화나무 가지를 꺾어 청자정병에 꽂았던 것이다. 그때 부처님이 원주스님을 보고 미소 짓는 듯했다. 잠시 후에는 법당 안에 매화 향기가 진동했다. 매화가지는 며칠 동안 정병에 꽂혀 있다가

매화꽃이 오글오글 말라 불단에 점점이 떨어지고 나서야 버려졌다. 주지스님이 원주에게 “부처님께 정수를 올리는 정병이 한낱 매병(梅瓶)이 되었군!” 하고 경책했다. 원주스님이 말했다.

“그래도 언젠가 청자항아리가 생기면 내 방에 갖다놓고 매병으로 호사를 누리고 싶소.”

최씨가 말했다.

“아따, 원주스님은 고상허요. 나는 술항아리로만 보이그만요.”

“하하하.”

원주스님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두 사람을 공양간으로 안내했다. 공양간은 요사채 뒤에 있었다. 참선하던 스님들은 벌써 공양을 마쳤는지 공양간은 텅 비어 있었다.

“여기 앉아 있으면 공양주보살이 저녁공양을 갖다 줄 것이요.”

“아이고메, 스님 잘 묵겠습니다요.”

공양주보살이 저녁공양이 든 소반을 놓고 갔다. 밥그릇과 국그릇 모두 황갈색 청자사발이었다. 무장아찌와 더덕장아찌가 든 접시만 잿빛 탐진토기였다. 두 사람은 저녁공양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모든 그릇들이 깨끗하게 비워져 설거지를 마친 것처럼 빛이 났다. 그때, 원주스님이 또 나타나 말했다.

“잠은 요사채에서 자세요. 저를 따라 오세요.”

두 사람은 원주스님을 따라서 공양간 앞에 있는 요사채로 갔다. 두 사람이 하룻밤 묵을 방은 요사채 골방이었다. 골방 한쪽에는 감자가 나무통 속에 반쯤 쌓여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방 안에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성님, 여그 온께 밥맛이 나부요. 어처케나 맛있든지 그릇까지 묵어불 뵈했소야.”

“배가 고향던 모양이네. 창고에 청자그릇덜을 나르고 난께 나도 겁나게 시장허드라고.”

“그라고 우리가 걸어온 거리가 솔찮허지라우.”

“영산강 넘음시로 하룻밤 자고 여그까지 쉬지 않고 왔던 거 같네야.”

두 사람은 한두 번 뒤치다꺼리다가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두 사람에게는 하룻밤이 선방 스님의 삼매와 같이 한 순간에 지나갔다. 원주스님이 깨우지 않았으면 아침공양도 찾아먹지 못할 뻔했다. 원주스님이 두 사람을 챙기는 까닭은 혼자서 청자기물들을 창고 안에 들여놓는 일을 최씨와 하씨가 어제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아침공양은 쌀죽과 인절미 세 쪽이 나왔다. 두 사람은 죽만 먹고 인절미는 속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청해진까지 가는 동안 시장하면 요기할 생각이었다. 두 사람은 무위사를 바로 떠나지 않았다. 최씨가 빗자루 두 개를 가져오더니 경내 마당을 청소해주자고 말했다.

“동상, 원주스님 덕분에 하룻밤 잘 자고 끼니도 해결했으께 청소나

해주고 가드라고. 가만히 봉계 스님덜은 모다 참선헌다고 선방으로 들어가불고 원주스님이 혼자서 청소허는 모양인디 우리가 해주믄 으쩔까?”
“성님, 그래야지라우. 원주스님이 성근지드그만요. 우리덜을 깨우지 않았으믄 굶을 뻔했당께요.”

두 사람은 법당 마당부터 비질을 구석구석 하기 시작했다. 선방 마당은 이미 비질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다. 참선하는 스님들이 이른 새벽에 비질을 했음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명부전 앞마당에 이어 극락전 왼편에 있는 선각대사탑비까지 나아갔다. 탑비의 모양은 특이했다. 용머리에 거북이 몸이었고, 거북이등에 직사각형의 비가 세워져 있었다. 최씨는 비에 새겨진 글씨를 대충은 읽을 수 있었다. 하씨가 궁금해 했다.

“성님, 뭘 말이 써 있소?”

“선각대사님이 으떤 인물인지 써 있그만.”

“아따, 성님은 유식허요잉. 글씨도 알고.”

“누구헌데 배운 것이 아니라 귀동냥헌 글이제. 군관을 험시로도 글씨를 쫓간 안께 편허드라고.”

“맞아라우. 나는 까막눈이라서 군관험서 손해를 가꿈 봤어라우.”

최씨가 탑비에서 살펴본 선각대사의 일생은 다음과 같았다. 선각대사 형미의 성은 최(崔)씨이고, 아버지는 낙권(樂權)이었다. 대사는 고안현(해남 마산면)에서 태어나 15세에 장흥 보림사에 주석하는 체징을 찾아가 출가했고, 당나라에서 14년간 선종의 무위법을 익힌 유학승이었다.

대사는 당나라 운거(雲居) 도옹((道膺)에게 선종의 무위법을 닦았으며

운거 문하 1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4명 중 한 사람이었다. 4명 모두 신라에서 간 유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을 해동사무외대사(海東四無畏大師)라고 불렀다. 즉 ‘해동의 두려움을 모르는 4인의 대사’로 유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중 첫 번째로 이름을 날린 유학생이 대사 형미였다. 운거 도옹의 인가를 받고 귀국한 4명의 선승은 모두 왕건을 도왔다. 대사 형미는 왕건이 나주와 서남해안의 호족들을 우군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후 대사는 무위사를 떠나 왕건의 군법사로서 철원으로 갔다가 왕건을 견제하던 궁예에게 죽임을 당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즉위 직후부터 “대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시신은 왕건이 즉위한 직후 919년 3월에 수습하여 개경 오관산(五冠山)에 이장하였다. 왕건은 대사를 왕사로 추증하고 921년 선각(先覺)이란 시호를 내렸다. 또 선각대사 편광탑비(先覺大師遍光塔碑)를 조성했는데, 편광영탑(遍光靈塔)이란 탑비에 태조가 죽고 난 뒤 혜종 때 태자사부(太子師傅)를 지냈던 최언위에게 맡겨 비문을 썼다. 그리고 나서야 정종 때에 무위사로 보내 안치했다. 최언위에게 비문을 의뢰한 것은 최치원, 최승우와 함께 신라 삼최로 불린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견훤의 조력자가 된 최승우, 은거해버린 사촌형(최치원)과 달리 왕건에게 귀의했던 것이다.

아침공양을 한 뒤 두 사람은 주지스님 방으로 불러갔다. 주지스님이 경내를 정성껏 청소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주지스님이 찻자리에 앉은 채 말했다.

“원주한테 거사님들 얘기를 들었소. 두 분의 거사님이 하룻밤밖에 머물지 않았는데도 경내가 더 없이 깨끗해져버렸소.”

“원주스님께서 하룻밤 채워주었으께 청소라도 해야지라우.”

“청자그릇들을 창고 안으로 나르는 모습을 먼발치에 보았소. 수고했소.”

어린 시자가 펄펄 끓는 찻물을 주전자에 담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다관에 탐진 발효차를 먼저 넣고 찻물을 부었다. 발효차를 따를 때마다 차의 향기가 주지스님 방 안에 시나브로 번졌다. 주지스님은 두 사람의 청자찻잔에 발효차를 여러 번 따랐다.



“탐진에서 자생하는 찻잎을 발효시킨 차인데 나는 지리산 김대렴의 차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차를 땀 잔 마셨더니 이마에 땀이 나는그만요.”

“몸에 따듯한 기운이 골고루 도니까 그래요. 탐진발효차는 만병통치 약이지요. 고뿔에도 좋고 속이 매스꺼울 때나 더부룩할 때도 좋아요.”

“주지스님, 혹시 속가 성씨가 최씨가 아닌게라우?”

최씨가 묻자 주지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탐진청자나 탐진차를 좋아하시는 것을 봉께 그런 생각이 들그만요.”

“속명을 버리고 출가했는데 굳이 밝힐 이유가 없소. 다만 무위사는 선각대사 이후 최씨들이 출가를 많이 했지요. 출가할 마음이 있소?”
“아니라우.”

두 삶이 동시에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자 청해진으로 가서 할 일이 있었던 것이다. 최씨가 또 물었다.

“주지스님, 선각대사님은 으째서 선각대사님을 돕다가 죽임을 당했을게라우?”
“선각대사님 탐비를 자세히 보았구먼.”

“지도 최가가 아납니까? 선각대사님이 우리 조상님 같아서 궁금허그만요. 글고 여그 무위사에서 가만히 겨셨으믄 화를 당허지 않았을 거 같아서 여쭙봤그만요.”

“태조께 신세를 졌으니 무위사에만 있을 수 없었겠지요.”

“대사님께서 무신 신세를 졌을게라우?”

주지스님은 해박했다. 최씨에게 폭포수처럼 거침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신라말의 사신과 유학승들은 장보고의 무역선을 이용해 당나라에 오갔는데, 김대립 등이 대표적이었고, 선승으로서는 쌍봉사 도운, 성주사 무염 등이었다. 그러나 장보고가 염장에게 피살되고 청해진을 폐쇄한 뒤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나라를 오가는 무역선이 한동안 사라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강화만 일대를 평정한 해상세력이었던 왕건 집안의 도움으로 유학길에 오른 유학승들이 많아졌다. 선각대사 형미도 왕건의 도움을 받아 당나라에 유학할 수 있었고, 형미의 사제들인 대경대사(大鏡大師) 여엄(麗嚴), 진철대사(眞澈大師) 이엄(利嚴), 법경대사(法鏡大師) 경유(慶猷)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4명의 선승들은 모두 왕건의 고려통일을

답게 되었다는 것이 주지스님의 설명이었다.

“대사님께서 귀국할 때 나주까지 왕건 집안의 배로 오셨으니 참으로 큰 신세를 진 것이지요.”

하씨는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등 하품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주지스님이 하씨의 표정을 보더니 화제를 바꾸었다.

“그런데 청해진에 친척이라든지 연고가 있소?”

“조상님께서서는 사셨지만 지덜은 연고가 없그만요.”

“그러면 가리포 법화사로 가서 당장에 숙식을 해결하시오. 마침내 상좌가 법화사에 가 있으니 내 상좌를 도와주면서 터를 잡는다면 수월하지 않겠소?”

“아이고메, 고맙그만요.”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함께 일어나 큰절을 했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즉시 목간을 꺼내더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즉견무수(卽見無修, 무수야 즉시 보거라)를 먼저 쓰고 나서 최씨와 하씨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지었다. 말하자면 주지스님이 두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글이었다.

두 사람은 주지스님 방을 나왔다. 무위사를 떠날 때 원주스님이 한 마디 했다.

“주지스님께서 두 분을 꼼꼼하게 살피시더군요.”

“원주스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지라우.”

두 사람은 무위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월출산 산봉우리 좌우로 이어진 산자락들의 청록색 빛깔이 유난히 선명했다.
두 사람은 병풍처럼 남쪽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마주하며 산길로 접어들었다.
왕릉처럼 동글동글한 산봉우리 사이의 고개를 넘어야 탐진바다 남당포로
내려갈 수 있었다.<계속>